

문화 지능과 성격, 문화 경험의 관계 탐색: 해외 유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김 민 회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 명 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본 연구에서는 인류 사회의 연결성 증가와 각국 공동체의 다문화성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문화 지능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 지능 개념을 소개하고 문화 지능 측정도구인 CQS의 구조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특히 성격과 문화 경험이 문화 지능과 갖는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문화 지능 연구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외 한국인 유학생들 1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CQS의 요인 구조는 문화 지능의 이론적 구조와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문화 진입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등 유학생의 일반적 적응 지표와도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CQS가 문화지능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성격과 문화 경험이 CQS로 측정되는 문화 지능 점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확인해보았으며, 그 결과 CQS 문화 지능이 문화적 경험보다는 성격과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연구적 함의와 미래 연구를 위한 제안 사항을 논하였다.

주요어 : 문화 지능, CQS, 성격, 문화 경험

[†] 교신저자 : 김명철,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번지
Tel : 02-584-6854, E-mail : kei0@snu.ac.kr

서론

21세기 인류 사회는 항공 등 운송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교환과 소통의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곳곳이 사람과 지식의 교류망으로 연결된 거대한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망은 매우 이질적인 문화들 간 교류를 촉발시키는데 이와 같은 교류는 SNS나 이주, 이민을 통한 개인 수준의 교류에서부터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나 멀리 떨어진 국가 또는 대륙 간의 교류에 이른다.

이질적인 문화 간 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문화를 다루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문화 요인을 심리학에 도입한 선구적 연구자들은 문화가 인지, 정서, 동기 등 다양한 심리적 양상에 가져오는 차이에 주목했다(예: Lubart, 1990; Markus & Kitayama, 1991). 그러나 최근의 세계화와 문화적 교류의 증가 경향에 따라 이제는 이질적 문화 간의 심리적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보다는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 민족, 개인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특성과 환경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흐름의 첫 발로서 문화 간 교류 상황에서 원활히 기능하게 만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연구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Ang, Van Dyne, Koh, Ng, Templer, Tay, & Chandrasekar, 2007). 이러한 개인의 문화적 상호작용 능력, 즉 문화적 교류 능력은 현재 문화 지능(cultural intelligence: CQ)으로 개념화되어 그 선구적 연구가 진행 중이다(Ng, Van Dyne, & Ang, 2012).

한국 또한 세계화 및 문화적 교류 증가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세계 각지의 문화권과 접촉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세계 각 문화권의 사람, 지식, 문화와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건설, 화학, 전자 등 한국 각 분야의 산업조직은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해외 생산 설비와 해외 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시장 진입도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의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각 문화 산업의 수익 기반이 해외 시장 위주로 재편되기도 했다(이진석, 2007).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유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5만 명 수준을 돌파했고(김경숙, 김민희, 2014) 국내에 유학하는 해외 학생들의 수와 문화적 다양성도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오랫동안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해왔던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의 유입으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양육 문제(김희태, 권영덕, 2007),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의 학업, 직업 영역 등에서의 사회 적응 문제(金參花, 2005)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구성원은 본인이 이질적 문화에 뛰어들어 그 속에서 기능해야 하거나 한국으로 유입된 이질적 문화권 사람들과 교

1) 이 같은 흐름은 비단 대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중소기업 또한 해외 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명철, 이지영, 김명언, 출판중)

류하고 이들을 한국의 여러 공동체 속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질적 문화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개인의 능력은 한국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한 능력과 자질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구 연구자들이 문화적 교류에 쓰이는 개인 능력으로 제안한 문화 지능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 측정 척도인 CQS의 타당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 개념과 척도를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문화 지능과 개인의 성격 및 문화 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 지능의 개념과 측정 도구, 문화 지능의 함의를 명확히 하여 한국 각계각층에 속한 개인의 문화적 교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화 지능

문화 지능은 조직 환경의 세계화와 조직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의 급격한 다문화화에 관심을 가진 조직학 연구자들이 구성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학 및 경영학에서 출발한 문화 지능 개념은 현재 일반적인 다문화적 구성과 문화적 교류 상황에서 문화적 갈등을 보다 원활히 관리하고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뜻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Kanter, 1995; Ng et al., 2012).

문화 지능은 Early와 Ang(2003)의 연구를 통해 명확한 구성개념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Sternberg와 Detterman(1986)의 지능 소재 이론을 바탕으로 문화적 상호작용 능력을 다중 소재를 가진 개인의 지능으로 개념화

하려 했다. Sternberg 등(1986)은 인간의 지능이 메타 인지, 인지, 동기, 행동에 그 소재를 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메타 인지(meta-cognition)’란 사람이 자신의 지식 구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뜻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지능의 소재이다. ‘인지(cognition)’는 다양한 지식으로 구성되는 지능의 소재이며 ‘동기(motivation)’는 지식 습득과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목표 의식), 힘, 끈기를 뜻하는 지능의 소재이다. ‘행동(behavior)’은 생각하는 바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해 내는 지능의 소재이다. 이처럼 지능의 네 가지 소재를 밝힘으로써 Sternberg 등(1986)은 지능이 단순히 지식의 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자신의 지능 수준을 잘 파악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배우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알고 있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합쳐진 지식이야말로 현실 세계에서 성공과 성취를 얻게 만드는 지능이라고 주장한다.

Early 등(2003)은 다문화적 환경에서 훌륭한 수행을 하게 만드는 개인의 지능 또한 이와 같은 네 개의 소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질적인 문화의 관습, 제도,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는 것(인지)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문화적 환경에서 훌륭하게 기능하고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적 지식을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문화적 지식을 발휘할 것인지 아는 능력(메타인지)과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동기,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 지능은 메타 인지적 문화 지

능(meta-cognitive CQ 또는 문화 지능-전략, CQ-strategy), 인지적 문화 지능(cognitive CQ 또는 문화 지능-지식, CQ-knowledge), 동기적 문화 지능(motivational CQ 또는 문화 지능-동기, CQ-drive), 행동적 문화 지능(behavioral CQ 또는 문화 지능-행동, CQ-action)으로 구성된다(Early et al., 2003; Van Dyne, Ang, & Koh, 2008).

먼저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개인이 문화 간 상호작용을 할 때에 자신의 문화적 지식(자기 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을 인지하고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 전략을 수립하거나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뜻한다(Ng, Van Dyne, & Ang, 2009a, 2009b).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계획 수립(planning), 지각(awareness), 검토(checking)의 세 가지 메타 인지 요소를 갖는다(Van Dyne, Ang, Ng, Rockstuhl, Tan, & Koh, 2012). 계획 수립은 개인이 문화 간 상호작용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능력이며 문화적 지식을 구체적인 행동에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각은 자신이 가진 문화적 지식과 행동 방식을 명확히 아는 것으로 특히 자신의 행동과 상호작용 전략에 자신의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할 때에 자신이 어떤 면에서 현지인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기도 쉽고 새로운 문화 규범을 받아들이기에도 용이할 것이다. 검토는 문화 간 상호작용에 앞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 가정, 지식이 실제 상호작용 경험과 불일치할 때 이를 감지하여 지식과 가정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다. 즉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문화적 지식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상

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원활한 상호작용과 새로운 지식 습득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Van Dyne et al., 2012).

인지적 문화 지능은 자신이 상호작용해야 할 타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구체적 지식을 뜻한다(Rockstuhl, Seiler, Ang, Van Dyne, & Annen, 2011; Van Dyne et al., 2008). 문화적 지식의 종류에는 경제, 법, 정치 제도와 전통 문화, 예술, 종교 등에 대한 지식, 사회적 상호작용 규범과 성 역할 기대, 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방법 등이 있다(Ng et al., 2012; Van Dyne et al., 2012).

동기적 문화 지능은 주로 타문화와 상호작용 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갖고 상호작용을 즐기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상호작용에 대한 효능감으로 구성된다(Early et al., 2003; Reichard, Dollwet, & Louw-Potgieter, 2013). 문화 지능 연구자들은 내적 동기와 효능감 요인이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치관, 성공적 상호작용 경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흥미와 끌림의 경험 등은 개인의 내적 동기와 효능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n Dyne et al., 2012).

마지막으로 행동적 문화 지능은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상황에 따른 발화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Van Dyne et al., 2012). 언어적 행동은 상호작용 대상이 되는 문화에 맞추어 말의 속도, 억양, 강세,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비언어적 행동은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구사하는 능력이다. 상황에 따른 발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는 언어적 소통 규범을 정확히 활용하는 능력으로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식

사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 할 때 “동생이 아프데요”라고 적절한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행동적 문화 지능은 주로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지적 문화 지능과 상호작용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문화 지능의 측정, 타당도, 적응과의 관계

Ang 등(2007)은 네 가지 소재로 구성되는 문화 지능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 지능 척도(Cultural Intelligence Scale: 이하 CQS)를 개발했다. 연구자들은 먼저 모두 긍정 문항으로 구성된 40개의 문항(각 하위요인 별 10문항)을 개발하여 싱가포르의 학부생 576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잔차가 크고 요인부하량이 낮은 20개 문항을 제거하고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 6 문항, 인지적 문화 지능 4 문항, 동기적 문화 지능과 행동적 문화 지능 각 5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했다. 이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 .72, 인지적 문화 지능 .87, 동기적 문화 지능 .76, 행동적 문화 지능 .83이었다.

Ang 등(2007)의 연구에서 20문항으로 구성된 CQS의 χ^2 는 822.26($df = 164$)이었으며 RMSEA는 .08, CFI는 .92를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곧바로 447명의 싱가포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381.28($df = 164$)의 χ^2 와 .05의 RMSEA, .96의 CFI를 얻었고 이와 같은 요인 구조는 동일한 참여자들에게서 4개월 뒤에도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337명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요인 구조를 확인하여 전반적으로 CQS의 요인 구조는 시간에 따라 안정

적이며 범문화적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Ang et al., 2007; Van Dyne et al., 2008).

이후 CQ는 한국 대학생(Moon, 2010), 미국 군 간부(Rockstuhl et al., 2011) 및 조직 구성원과 리더들(Groves & Feyerherm, 2011; Imai & Gelfand,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요인 구조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7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되었다(Matsumoto & Hwang, 2013).

수렴 타당도의 측면에서 CQS는 성격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Ang, Van Dyne, Koh, 2006), MPQ(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개방성과도 상관을 나타냈다(Fischer, 2011). 다른 지능 구인들과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에 있어서 CQS는 정서 지능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일반적 지능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Ang et al., 2007; Rockstuhl et al., 2011).

문화 지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던 다문화 상호작용의 다양한 장면에서 CQS는 연구자들이 기대한 바대로의 예측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CQS는 국외 거주자의 문화 적응과 현지에서의 직업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Lin, & Sawangpattanakul, 2011; Lee & Sukoco, 2010; Templer, Tay, & Chandrasekar, 2006). CQS는 또한 다문화 상호작용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잘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주고(Ang et al., 2007) 해외 출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었으며(Ramsey, Leonel, Gomes, & Monteiro, 2011) 해외에 근무하는 리더의 리더십 효과성을 증진시켰다(Rockstuhl et al., 2011). 특히 조직 장면에서는 특별히 다문화적 장면이 아니라 할지라

도 CQS가 리더의 협상 능력(Imai et al., 2010), 리더와 팀의 성과(Groves et al., 2011) 등과 관련을 보이는데 이는 문화 지능이 이질적 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일반적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는 주로 집단 및 조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리더십과 관련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능의 개념과 측정 타당도를 보강하기 위해 다문화 접촉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안녕감과 같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심리적 측정치와 문화 지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문화 지능의 개인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들은 문화 지능이 선천적인 지능과 유사한 것인가 아니면 경험과 수련으로 습득되고 개발되는 상태적 특성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CQS를 사용한 문화 지능에 대한 연구에서 먼저 CQS는 성격 5요인과 높은 관련성을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성실성 및 개방성과, 인지적 문화 지능과 동기적 문화 지능은 외향성 및 개방성과, 행동적 문화 지능은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Ang et al., 2006).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 지능과 개인 성격의 관계를 강조한다.

반면 문화 지능이 경험과 수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연구 증거도 존재한다. 문화 지능은 과거 해외에서 살거나 공부한 경험과 정적 상관을 가지며(Ang et al., 2007; Rockstuhl et al., 2011) 문화 지능 향상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Hodges, Watchravesringkan, Karpova, Hegland, O'Neal, & Kadolph, 2011)는 증거들이 있다.

따라서 문화 지능과 성격 및 문화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특히 문화 지능의 효과성 연구(예: Ang et al., 2007) 만큼의 함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분야인 문화 지능 증진 방안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능과 성격 및 문화 경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문화 지능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연구 및 문화 지능의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및 설계

본 연구는 명백한 다문화 접촉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인 해외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인 해외 유학생 집단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 해외에 파견된 조직 구성원 등과 함께 그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도 다문화 접촉 상황 속에서 심리적 적응이나 사회적 기능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으로 적절한 연구 관심을 필요로 하는 집단 중 하나이다(김경숙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에 따른 엄밀한 표본 추출(예를 들어 각 대학이나 지역별 표본 할당이나 인구통계학적 근거 및 참여자 특성에 따른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해외 유학생 표본에 대한 연구자 접근성의 한계와 자료 수집 용이성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는 체계적 이론의 전개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QS가 성격 5요인 및 문화적 접촉 경험과 갖는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문화 지능을 안정적 특질로 보고 문화 지능과

상호작용하여 실제 개인이 다문화 상호작용에서 잘 기능하도록 해주는 상황과 환경 요소를 찾는 연구에 집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 지능이라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교육과 경험 등의 요인을 찾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 같은 탐색적 분석에 앞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과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는 문화 지능과 CQS의 구성 타당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CQS의 예측 타당도를 확인할 때에는 유학생의 다문화 경험에서 두드러지는 내적 심리적 특징과 문화 지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문화 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내적 심리적 특징은 이질적 문화에 진입함에 따라 유학생이 겪는 문화 진입 스트레스(고설동, 2012; Sandhu & Asrabadi, 1994), 유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문한식, MorrisTony, 김정완, 2013; Koyama, 2005), 그리고 유학생의 대표적 다문화 경험 적응 지표인 주관적 안녕감(김현옥, 2011)이다.

연구

방법

참가자 및 설문 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유학생 중,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업 중인 남녀 유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문, 동의서와 연구 설문지가 포함되었고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은 다음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고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

지의 배포 및 수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방식은 설문지를 현지조사원에게 메일로 발송하고 현지 조사원이 연구에 동의하는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연구자가 아는 유학생에게 직접 설문지를 메일로 발송하고 스노우볼 방식으로 설문조사하여 메일로 회신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식은 방학 중 일시 귀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 방식은 캐나다와 미국의 종교기관, 한인학생 회장에게 메일을 발송한 후 설문지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는 남성 64명(44.8%)과 여성 79명(55.2%)이었다. 참가자 나이는 19세에서 34세에 걸쳐 분포되었으며 이 중 22세에서 24세의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이루었다. 참가자 중 미국 유학생은 59명(41.3%), 캐나다 유학생은 84명(58.7%)이었으며 참가자들의 유학 연차는 1년 이내에서 11년에 이르렀다.

도구

문화 지능

Ang 등(2007)의 문화 지능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번역은 박사급 연구자 두 명의 번역 과정과 이중 언어 구사자의 감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메타 인지 4문항, 인지 6문항, 동기 요인과 실천적 행동 요인 각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타 인지 문항은 응답자가 다문화 상호작용 상황에서 문화적 지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자신이 문화적 지식을 활용하는 양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

정하는 성향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할 때 내가 어떤 문화적 지식을 적용하는지 의식하고 있다.” 등이 있다. 인지 요인은 다른 문화에 대해 응답자가 가진 지식의 실제 양을 측정하는 부분이며 “나는 다른 문화권들의 결혼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다른 문화권들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알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 요인은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 응답자의 동기적, 감정적 경향성과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긴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행동 요인은 응답자가 실제로 다문화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에 따라 나의 비언어적 행동 방식을 조절한다.” 등 응답자의 행동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연구 결과 부분에 제시하였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

CQ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질적 문화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Sandhu와 Asrabadi(1994)의 국제 학생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를 이승중(1995)이 번안한 문화 진입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사회적 갈등을 총 36문항으로 측정한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차별과 기회불균등에 대한 지각인 ‘지각된 차별감’,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불인정과 직·간접적 적대감의

체험인 ‘지각된 미워함’, 신변이나 자아상실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 이질적 문화의 압박감과 환경의 급변을 뜻하는 ‘변화와 문화충격’,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자의식인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의사소통 문제를 뜻하는 ‘기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전체 척도 cronbach's α 는 .95였다.

학업 스트레스

CQ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척도로 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와 Bakker(2002)가 개발한 학업탈진 척도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Lee와 Larson(2010)이 한국 학생들에게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 탈진 척도는 정서 소진(Exhaustion) 5문항, 냉소주의(Cynicism) 4문항, 효능감 감소(Professional Efficacy) 6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역시 CQ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정준구(2009)가 리커트 5점 척도 다섯 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BFI(Big Five Inventory)를 김지현, 김복환과 하문선(2011)이 간편형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FI는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성

항을 측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요인별 cronbach's α 는 .69, .79, .82, .89, .77이었다.

문화 경험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중에는 다문화 접촉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참여자의 나이는 간접적으로 다문화 접촉 경험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나이를 측정하였다. 직접적으로 각 참여자가 해외 유학지에서 체류한 기간은 해당 문화에 대한 접촉과 경험을 늘려줄 것이므로 참여자의 유학 연차도 경험 변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조기유학자의 경우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도식이 완전하지 않을 때에 외국 문화에 접촉하게 되므로 외국 문화를 더 원활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조기 유학 여부를 측정하였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차이가 각 지역 유학생의 문화 지능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유학지에 따라 미국 유학생 집단과 캐나다 유학생 집단을 구분하였다.

당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화 지능 척도 20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각 요인별 합치도와 요인 간 상관은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척도의 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 요인은 서로 상관 관계가 가정되었고 전체가 단일한 상위 요인인 문화 지능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분석 결과 모형의 χ^2 는 287.3($df = 164, p < .001$)이었고 RMSEA는 .073, CFI는 .936으로 나타났다. 상위 요인인 문화 지능에 대한 각 하위 요인의 표준화 회귀 계수는 메타 인지 요인이 .267, 인지 요인이 .285, 동기 요인이 .292, 행동 요인이 .314였다.

마지막으로 CQS의 예측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 지능이 이들의 현지 문화 적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2를 살펴보면 CQS의 인지적 문화 지능, 동기적 문화 지능, 행동적 문화 지능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주관적 안녕감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는 문화 지능이 다문화 접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받고 보다 원활

결 과

문화 지능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요인 구조, 예측 타당도

문화 지능과 성격 및 문화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연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문화 지능 측정 방법의 신뢰도와 타

표 1. 문화 지능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와 요인 간 상관

	메타	인지	동기	행동	Cronbach's α
메타	-				.89
인지	.371**	-			.87
동기	.347**	.545**	-		.91
행동	.320**	.498**	.636**	-	.92

** $p < .01$

표 2. 문화 지능과 문화 적응

	문화 진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메타	-.025	-.157	.073
인지	-.224**	-.297**	.214*
동기	-.366**	-.366**	.326**
행동	-.225**	-.331**	.205*

* $p < .05$, ** $p < .01$

히 심리적 기능을 유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 (Ang et al., 2007; Chen et al., 2011; Ramsey et al., 2011)와 부합한다. 반면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적응과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 지능의 특성: 성격 및 문화 경험에 의한 위계적 회귀 분석

문화 지능의 각 요인별로 성격 5요인 및 문화 경험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Ang 등 (2006)은 문화 지능과 성격의 강한 상관관계를 논하며 문화 지능이 선천적 지능의 성격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반면 Kim과 Van Dyne(2012), Ng 등(2009b)은 문화 지능이 후천적 경험에 의해 성장할 수 있는 개인 능력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능의 각 하위요인이 성격 및 경험 요소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검증하여 문화 지능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후 문화 지능의 결정 요인과 증진 방안을 탐구하는 인과적 연구의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천적 요인인 성격 5요인과 성별의 작용과 유학 연차 등 후천적 요인의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특히 선천적 요인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의 후천적 요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 방법을 활

용하였다. 성별, 유학지, 조기유학 여부와 같은 불연속 변수는 회귀 분석에 투입할 때에 남성(0)과 여성(1), 유학지 미국(0)과 유학지 캐나다(1), 조기유학을 하지 않은 사람(0)과 조기유학자(1)로 더미코딩하였다.

먼저 메타 인지 요인에 대해서는 성격과 성별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형 1의 R^2 변화량만이 통계적 의미를 가졌고($\Delta R^2 = .114$, $p = .011$, 수정된 $R^2 = .075$) 나이, 유학지, 유학연차, 조기유학 여부가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형 2의 R^2 변화량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 성격과 성별 중 β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으며 단지 경험에 대한 개방성($\beta = .183$, $p = .054$)과 성실성($\beta = -.155$, $p = .089$), 외향성($\beta = .177$, $p = .071$)이 $p < .1$ 수준에서 의미를 보였을 뿐이다. 메타 인지는 기존 연구를 통해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성실성, 즉 다문화 상호작용에 개방적이고 본인의 행

표 3. CQS 메타 인지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

	1단계		2단계	
	B(SE)	β	B(SE)	β
개방성	.167(.086)	.183	.142(.086)	.155
성실성	-.156(.091)	-.155	-.156(.094)	-.155
외향성	.182(.100)	.177	.191(.099)	.186
우호성	.157(.100)	.147	.124(.102)	.117
신경증성향	.115(.084)	.127	.121(.086)	.133
성별	-.187(.134)	-.118	-.145(.137)	-.091
나이			.008(.021)	.039
유학지			-.243(.135)	-.150
유학 연차			.019(.035)	.077
조기유학			-.319(.241)	-.201
	$R^2 = .114$		$R^2 = .159$	
	$\Delta R^2 = .114^*$		$\Delta R^2 = .045$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동과 지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성격 요소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성실성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메타 인지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메타 인지와 부정적으로 관련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성실성이 자기 행동 관찰의 측면에서 메타 인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기 체계를 중시하는 보수적 특질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인지 요인에 대해서는 모형 1($\Delta R^2 = .212, p < .001$, 수정된 $R^2 = .177$)과 모형 2($\Delta R^2 = .079, p = .008$, 수정된 $R^2 =$

.236)가 모두 유의미했다. 모형 2를 기준으로 각 변수의 β 를 살펴보면 성실성은 문화적 지식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경증 성향은 부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타문화에 대한 지식수준은 감소하고 점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의 자연스러운 현상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른 문화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미세한 세대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좀 더 광범위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캐나다에 유학하는 학생보다 타문화에 관심이 더 높

표 4. CQS 인지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

	1단계		2단계	
	B(SE)	β	B(SE)	β
개방성	.157(.080)	.173	.124(.078)	.137
성실성	.158(.086)	.157	.208(.086)	.208*
외향성	.065(.094)	.064	.080(.091)	.078
우호성	.042(.094)	.040	-.009(.093)	-.009
신경증성향	-.214(.079)	-.237**	-.223(.079)	-.247**
성별	-.131(.126)	-.083	-.142(.125)	-.089
나이			-.038(.019)	-.184*
유학지			-.409(.123)	-.254**
유학 연차			.014(.032)	.057
조기유학			-.212(.220)	-.134
	$R^2 = .212$		$R^2 = .290$	
	$\Delta R^2 = .212^{**}$		$\Delta R^2 = .079^{**}$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표 5. CQS 동기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

	1단계		2단계	
	B(SE)	β	B(SE)	β
개방성	.222(.074)	.227**	.207(.075)	.212**
성실성	.163(.078)	.150*	.197(.082)	.183*
외향성	.141(.086)	.128	.144(.087)	.131
우호성	.290(.086)	.254**	.281(.089)	.247**
신경증성향	-.191(.072)	-.196**	-.179(.075)	-.184*
성별	-.251(.116)	-.147*	-.274(.119)	-.160*
나이			-.018(.018)	-.080
유학지			-.159(.118)	-.092
유학 연차			-.015(.030)	-.056
조기유학			-.033(.210)	-.019
	$R^2 = .430$		$R^2 = .444$	
	$\Delta R^2 = .430^{**}$		$\Delta R^2 = .014$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인지 요인과 긍정적 관계를 보였던 개방성과 외향성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아 문화적 지식은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성격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기 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정리했다. 문화지능의 동기 요인은 오로지 성격과 성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타문화와 접촉하고 다문화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긍정적 정서는 경험보다는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성격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은 문화 지능 동기 요인과 긍정적 관련을 보였고 신경증 성향은 부정적 관련을 보였다.

표 6. CQS 행동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

	1단계		2단계	
	B(SE)	β	B(SE)	β
개방성	.109(.081)	.118	.088(.081)	.096
성실성	.172(.086)	.168*	.216(.089)	.211*
외향성	.102(.095)	.098	.108(.094)	.103
우호성	.093(.095)	.087	.074(.097)	.068
신경증성향	-.242(.079)	-.262**	-.234(.082)	-.254**
성별	.099(.127)	.061	.076(.130)	.047
나이			-.024(.020)	-.113
유학지			-.241(.128)	-.147
유학 연차			-.011(.033)	-.045
조기유학			-.060(.229)	-.038
	$R^2 = .231$		$R^2 = .261$	
	$\Delta R^2 = .231^{**}$		$\Delta R^2 = .030$	

주. VIF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 $p < .05$, ** $p < .01$

성별의 효과 또한 관찰되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하겠다는 동기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실천적 행동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 결과 또한 동기 요인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여 성격 변수와의 관련성만이 관찰된다(표 6). 이때 성실성은 높은 실천적 행동 성향과 관련되고 신경증 성향은 반대의 효과를 갖는다.

논 의

CQS의 요인 구조와 예측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CQS는 기존 연구(Ang et al., 2007; Moon, 2010)에서 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네 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Chen et al., 2011; Lee et al., 2010; Ramsey et al., 2011)에 나타난 것과 같은 예측 타당도를 보였다. 단,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 요인의 경우에는 예측타당도 측면에서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CQS의 4 요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다른 세 가지 문화 지능과 상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 요인과 달리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의 예측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ng 등(2007)의 연구에서도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문화적 적응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연구자들은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이 문화적 적응 지표보다는 특히 다문화 접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Ang 등(2007)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은 인지적 문화 지능이

나 동기적 문화 지능처럼 문화적 적응(문화 진입, 학업 수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능 요소라기보다 다른 세 요인에 선행하는 근본적이고 간접적인 요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바로 메타 인지적 문화 지능 요인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즉 CQS의 다른 하위 요인은 각기 인지, 동기, 행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지만 메타 인지 요인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인지 능력(또는 성향)을 소수의 문항으로 질문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각 문항은 동시에 여러 가지 특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메타 인지의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반드시 메타 인지의 자기보고식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격과 문화 경험, 문화 지능의 위계적 회귀 분석에 따르면 문화 지능은 경험과 관련된 특성이라기보다는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특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메타 인지, 동기, 행동 요인에서는 성격과 성별의 영향이 나타날 뿐 경험 요소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심지어 경험 요소의 영향이 나타났던 인지 요인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격 요소와 각 하위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성격 5요인 중 개방성은 특히 타문화와 상호작용하려는 동기적 문화 지능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개방성이 높은 것은 실제로 타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인지 요인)이나 타문화의 관습에 따라 잘 행동하는 것(행동 요

인)과는 별 관련이 없었다. 유학생들이 실제로 가진 문화적 지식의 양이나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향성은 오히려 성실성과 더 명확한 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신경증 성향과 명확한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성실성과 신경증 성향은 동기 요인과도 각각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중 문화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은 성실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높은 성실성) 차분하며 안정적인(낮은 신경증 성향)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처럼 서구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에 비해 한국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개방성과 문화 지능의 관계가 약하고 성실성과 문화 지능의 관계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다문화 접촉 상황에 대한 동서양 참여자의 근본적 시각 차이를 드러내 보인 것일 수 있다. 만약 서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접촉 상황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한 반면 한국인 참여자들은 다문화 접촉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평가했다면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에 대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능이 다문화 접촉 경험보다는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신경증 성향과 같은 성격 특질과 더 큰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 지능을 안정적인 특질 또는 역량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지능을 일종의 특질이나 안정적 역량으로 파악한다면 향후에는 문화 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상황 및 환경 요소를 밝혀내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표집이 불완전하

다는 것과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간접성이다. 먼저 본 연구는 표집 획득의 어려움 때문에 단일 표집을 대상으로 CQS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연구 및 CQS와 성격, 문화 경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모두 진행하였다. 표집의 어려움은 조사 방법의 제한으로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문화적 경험을 심도 있게 수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연령이나 유학 연차, 조기유학 여부와 같은 본 연구의 문화 경험 지표들은 매우 간접적이며 의미가 제한된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본 연구가 문화 지능과 성격 및 문화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 지능의 특성을 규명하려 한 초기 연구 중 하나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 결과의 함의는 제한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낸 문화 지능의 성격적 특성은 아직까지는 문화 지능의 특성에 대한 여러 가설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화 지능 개념과 CQS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연구 주제이며 다문화 교류에 적합한 개인 특성을 측정 가능한 심리학적 개념으로 구현해 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더욱 의미 있는 문화 지능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 지능의 개념과 구조, 측정 방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문화 지능 척도 CQS는 다문화 접촉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메타 인지, 인지, 동기, 행동을 측정하지만 실제 문화 접촉 상황에서는 이처럼 일반적인 지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

영하고 이 속에서 개인이 갖는 경험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실험 연구 방법이나 특히 다문화 접촉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층적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유력한 방법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지능의 측정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험의 측정 또한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 동일하게 10년간 유학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도 이들이 이 기간 동안 경험하는 다문화 접촉 상황의 양과 질은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양한 환경 및 과정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공동체에서 개인이 문화적 소수자에 속하는지 혹은 다수자에 속하는지는 개인의 문화적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 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Cox, 1993; Kim et al., 2012; O'Reilly & Chatman 1996).

이처럼 문화 지능과 문화적 경험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심도 있게 측정했을 때 문화 지능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격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측면 또한 갖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즉 이제 문화 지능 연구는 단순한 문화 지능 지표와 그것의 단순한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는 역동적 상호작용 연구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개인의 구체적인 문화 진입 경험과 효능감, 개인의 소수자 지위, 사회의 다문화 가치관과 환경 등 문화 지능 및 문화적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요소를 포괄하는 다각적인 연구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문화 지능의 개념과 역할, 작동 조건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설동 (2012).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 부산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김민희 (2014).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해외유학생의 문화진입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 67-88.
- 金參花 (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김현옥 (2011). 재한 동아시아유학생의 문화적응, 지각된 차별감, 민족유형이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태, 권영덕 (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95-117.
- 문한식, MorrisTony, 김정완 (2013). 재한 여학생들의 유학생생활 부적응에 따른 스포츠 참여가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교육학회, 18(1), 29-52.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1), 125-146.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이진석 (2007).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준구 (2009).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여가 및 가족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Ang, S., Van Dyne, L., & Koh, C. (2006). Personality correlates of the four-factor model of cultural intelligence.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1, 100-123.
- Ang, S., Van Dyne, L., Koh C., Ng, K. Y., Templer, K. J., Tay, C., & Chandrasekar, N. A. (2007). Cultural intelligence: Its measurement and effects on cultu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ultural adaptation and task performan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3, 335-371.
- Chen, A. S. -y., Lin, Y. -c., & Sawangpattanakul, A.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ntelligence and performance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culture shock: A case from Philippine laborers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246-258.
- Cox, T. (1993). *Cultural diversity in organization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F: Berrett-Koehler.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arley, P. C., & Ang, S. (2003). *Cultural Intelligence*:

- Individual interactions across cultures*.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scher, R. (2011). Cross-cultural training effects on cultural essentialism beliefs and cultur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767-775.
- Groves, K. S., & Feverherm, A. E. (2011). Leader cultural intelligence in context: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m cultural diversity on leader and team performance.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6, 535-566.
- Hodges, N., Watchravesringkan, K., Karpova, E., Hegland, J., O'Neal, G., & Kadolph, S. (2011).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extile and apparel curriculum designed to foster student's global competenc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9, 325-338.
- Imai, L., & Gelfand, M. J. (2010). The culturally intelligent negotiator: The impact of cultural intelligence(CQ) on negotiation sequences and outcom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2, 83-98.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New York: Guilford.
- Kanter, R. M. (1995). *World Class: Thriving locally in the global econom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Kim, Y. J., & Van Dyne, L. (2012). Cultur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eadership potential: The importance of contact for members of the majorit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61, 272-294.
- Koyama, C. (2005). *Acculturation stress and alcohol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a U. S. community college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 technician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g hours of studying, distress, &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Lee, L. -Y., & Sukoco, B. M. (2010). The effects of cultural intelligence on expatriate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tional experi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1, 963-981.
- Lubart, T. I. (1990). Creativity and cross-cultural var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5, 39-5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 Hwang, H. C. (2013). Assess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review of available tes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 849-873.
- Moon, T. (2010). Emotional intelligence correlates of the four-factor model of cultural intelligen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 876-898.
- Ng, K. Y., Van Dyne, L., & Ang, S. (2009a). Developing global leaders: The role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cultural intelligence. *Advances in Global Leadership*, 5,

- 225-250.
- Ng, K. Y., Van Dyne, L., & Ang, S. (2009b). From experience to experiential learning: Cultural intelligence as a learning capability for global leader developmen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8, 511-526.
- Ng, K. Y., Van Dyne, L., & Ang, S. (2012). Cultural intelligence: A review,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A. M. Ryan, F. T. Leong, & F. L. Oswald (Eds.), *Conducting Multinational Research: Applying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the workplace* (pp. 29-5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Reilly, C. A., & Chatman, J. A. (1996). Culture as social control: Corporations, cults and commitment.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8, 157-200.
- Ramsey, J. R., Leonel, J. N., Gomes, G. Z., & Monteiro, P. R. R. (2011). Cultural intelligence's influence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veler's stress. *Cross-Cultural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8, 21-37.
- Reichard, R. J., Dollwet, M., & Louw-Potgieter, J. (2013). Development of cross-cultural psychological capital and its relationship with cultural intelligence and ethnocentrism.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9, 150-164.
- Rockstuhl, T., Seiler, S., Ang, S., Van Dyne, L., & Annen, H. (2011). Beyond general intelligence (IQ) and emotional intelligence(EQ): The role of cultural intelligence(CQ) on cross-border leadership effectiveness in a globalized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67, 825-840.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 Sternberg, R. J., & Detterman, D. K. (1986). *What is intelligence?* Norwood, NJ: Ablex.
- Templer, K. J., Tay, C., & Chandrasekar, N. A. (2006). Motivational cultural intelligence, realistic job preview, realistic living conditions preview, and cross-cultural adjustment.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1, 154-173.
- Van Dyne, L., Ang, S., & Koh, C.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QS: The cultural intelligence scale. In S. Ang & L. Van Dyne (Eds.), *Handbook of Cultural Intelligence: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New York, NY: Sharpe.
- Van Dyne, L., Ang, S., Ng, K. Y., Rockstuhl, T., Tan, M. L., & Koh, C. (2012). Sub-dimensions of the four factor model of cultural intelligence: Expanding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ultural intelligenc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 295-313.

논문 투고일 : 2015. 02. 16

1 차 심사일 : 2015. 03. 11

게재 확정일 : 2015. 05. 18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ntelligence with Experiences and Personality: Among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Min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MyungChol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alidate CQS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intelligence among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143 Korean students in USA and Canada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dentified a model with four factors and CQS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acculturation stress and academic stress but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wellbeing. This findings suggest that CQS is a reliable and valid scal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confirmed that personality is more significant predictor than cultural experiences for CQS. Discussion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Key words : *cultural intelligence, CQS, personality, cultural experience.*